

허정무호 젊은피 대거 수혈

전남 드래곤즈 이규로 등 25명 남아공 전훈멤버 확정
국내파 중심 팀 꾸려 ... 마지막 '옥석가리기' 실험 무대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이 내년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스페인 전지훈련에 데리고 갈 선수를 확정했다.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파주 NFC(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테스트와 자체 연습경기 등을 진행하면서 선수들의 준비상태를 직접 점검했던 허 감독은 29일 25명의 전훈 멤버를 추려 발표했다.

일본 J-리그에서 뛰는 이정수(가시마), 김근환(요코하마), 박주호(이와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내에서 뛰는 선수들이다. 지난해 11월 치른 유럽 원정 평가전까지 해외파 선수를 중점적으로 테스트했던 허 감독은 내년 1월 전훈에서는 국내파 중심으로 팀을 꾸려 경쟁력을 실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내년 월드컵 본선 개최국 남아공에서 이뤄질 전훈에서는 훈련, 숙박, 이동 등을 모두 본선 일정에 맞춰 진행할 계획이라 참가 선수들에게는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2007년 말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되고 나서 한국 축구의 세대교체를 성공적으로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은 허 감독은 이번에도 젊은 선수들을 대거 발탁했다.

J-리그 김근환, 박주호를 비롯해 이규로(전남), 최철순(전북), 김재성, 신형민(이상 포항), 김보경(흥인대), 이승렬(서울), 김신욱(울산), 하태균(수원) 등 10명은 아직 A대표팀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뛰어난 적도 없다.

이 중 스물여섯 살의 김재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3세의 '젊은피'들이다.

허정무 감독은 "체력테스트를 통해 전체적인 선수들의 몸 상태와 국제경기 수준에 필적할 만한 기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면서 "이번 테스트를 통해 어린 선수들의 현재 가능성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뽑힌 새내기들은 대부분 소속팀에서 주축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미드필더 김재성과 신형민은 올해 포항 스틸러스가 리그 컵대회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 정상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탠 선수들이고, 수비수 최철순도 전북 현대를 창단 후 첫 K-리그 우승으로 이끈 주역이다.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8강 진출에 앞장섰던 미드필더 구자철과 김보경, 공격수 이승렬도 이번에는 대표팀 막내로 해외 전훈에 따라나서게 됐다. /연합뉴스



광주상무프로축구단 산하 U-15 유소년 클럽인 광덕중 축구팀이 29일 창단식이 끝난 후 새로 개장한 광덕중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임창용 연봉 160만달러

야쿠르트와 재계약

2009시즌 일본 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마무리투수로 맹활약한 임창용(33)이 내년에도 올해보다 3배 많은 연봉을 받게 됐다.



일본 스포츠전문지 스포츠니혼은 야쿠르트가 임창용과 내년 시즌 올해 연봉(50만 달러)보다 220%(110만 달러) 오른 16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고 29일 보도했다.

2007년말 야쿠르트와 3년 계약을 체결한 임창용은 진출 첫해인 2008년 연봉 30만 달러, 2009년 50만 달러를 받았으나 내년에는 수직으로 상승한 큰돈을 손에 쥐게 됐다. 야쿠르트 관계자는 "전반기에 구단 신기록인

20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제비군단 수호신으로 지난해 1승5패 33세 이브 평균자책점 3.00을 남겼던 임창용은 일본 진출 2년째인 올해는 5승4패 28세이브, 평균자책점 2.05라는 진일보한 성적을 거뒀다. /연합뉴스

KIA 김중국 1억2천만원 재계약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는 29일 내야수 김중국(36)과 내년 연봉 1억2천만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다.

2009시즌 연봉이 동결된 김중국은 올해 51경기에 출장해 타율 0.250을 기록하며 홈런 1개와 9타점을 올렸다.

이로써 KIA는 내년 연봉 재계약 대상자 56명 가운데 48명과 재계약을 마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상무산하 유소년 클럽
광덕중 축구팀 창단

김연아, 연말은 없다... 오직 훈련!

연일 동계올림픽 금메달 특훈... 아사다도 휴가 반납

광주상무프로축구단 산하 U-15 유소년 클럽인 광덕중 축구팀이 출범했다.

광덕중은 29일 오전 학교 체육관에서 광주상무의 구단주인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강박원 시의회위원장, 안순일 교육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팀 창단식을 열었다.

최성국 등 프로축구 광주상무 선수단도 창단식장을 찾아 후배들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인조잔디 운동장(가로 105m, 세로 68m)도 개장돼 광덕중은 광주지역 학원 최초로 국제 규격의 운동장을 보유하게 됐다.

금호고 출신의 김성구 감독이 사령탑을 맡은 광덕중 축구팀은 공개 테스트를 통해 선발한 23명의 선수들로 구성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금메달을 놓고 경쟁하는 한국과 일본의 동갑내기 '피겨 스타' 김연아(19·고려대)와 아사다 마모(19·주교대)가 연말연시 떠들썩한 분위기를 뒤로 한 채 훈련장에서 금메달 특훈에 매진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29일 "내년 2월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까지 휴가 일정 없이 토론토 크리켓클럽 빙상장에서 훈련에 집중하기로 했다"라며 "연말은 물론 내년 1월 1일에도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훈련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B스포츠에 따르면 김연아는 피겨에 입문한 이후로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제대로 쉰 적이 없다. 김연아는 지난 24일에도 새벽 훈련으로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을 열었다. 덕

분에 명절 음식을 제대로 챙겨서 먹어본 적도 드물 정도라는 게 IB스포츠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여곡절 끝에 밴쿠버행 티켓을 차지한 아사다의 사정도 김연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일본 스포츠신문 스포츠호치는 "아사다가 연말연시 휴가를 반납하고 특별훈련에 매진하기로 했다"라며 "이번 달 31일까지 아이치현 도요타시의 주교대 실내스케이팅장에서 연습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아사다가 내년 2월 동계올림픽 직전까지 타티아나 타라스바 코치가 제시한 주 1회 휴식을 지켜나가기로 했다"라며 "내년 1월 1일에만 하루를 쉬고 계속 훈련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핸드볼큰잔치 내년 1월3일 개막

21번째를 맞는 핸드볼큰잔치가 새로운 방식으로 팬들에게 다가간다.

새해 1월3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내 펜싱경기장에서 개막하는 2010 핸드볼큰잔치는 정음에서도 7일간 경기를 펼친 뒤 펜싱경기장으로 돌아와 1월20일 결승전을 치른다. 이번 대회는 많은 팬들을 불러모으기 위해 변화를 시도했다.

그동안 핸드볼큰잔치에서는 하루에 5경기나 열리는 등 팬들의 관전 편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는 하루에 3경기만을 편성해 집중도를 높였다.

또한 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대다수 경기 시작 시간을 오후 5시 이후로 잡아 더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도록 했다.

경기 방식에서는 남자부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전에는 대학팀과 실업팀이 조별리그로 경기를 펼쳤지만 이번에는 11개 대학팀과 실업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팀을 가린다.

한편 경기를 패하면 승자조에서 탈락하지만 패한 팀들이 따로 토너먼트를 치르는 패자부활전이 있어 우승의 기회는 남겨 줬다.

지난 해 핸드볼큰잔치와 실업연맹 슈퍼리그, 전국체전을 모두 휩쓴 두산이 여전히 막강한 전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패기의 상무, 2008년 우승팀 웰컴크레디트 코로사가 두산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 2009.12.20 ~ 2010.02.28

100% 상품가능 (주)우등관광여행사

전화: 062-383-9042

제주여행 이지 할인 받고 가자!!

제주도 3박 4일 패키지	제주도 4박 5일 패키지	제주도 5박 6일 패키지
제주도 6박 7일 패키지	제주도 7박 8일 패키지	제주도 8박 9일 패키지

www.jesjuna.com (인터넷 결제도 가능)